

“범실 겁내지 마” vs “빈틈 보이지 마”

V리그 챔피언결정전 ‘장충 엔딩’ 만들 승자는 누구  
과감한 대한항공·신중한 우리카드 3·4차전 주목

남자프로배구 대한항공의 토종 레프트 정지석(26)은 “매일 경기하는 중목의 선수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했고, 외국인 라이트 요스바니 에르난데스(30·등록명 요스바니)는 “이제 겨우 2차전을 했는데 지쳤다. 5차전까지 가면 누구 하나 실려 나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에서 마지막 5차전 승부를 펼친다. 앞서 15번 열린 남자부 챔피언결정전에서 1승 1패로 맞선 채 3차전에 돌입한 사례는 총 7번이었다. 이중 3차전에서 승리한 팀이 6번(85.7%)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대한항공은 1·2차전처럼 과감하게, 우리카드는 신중하게 3차전을 치를 계획이다.

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령탑의 판단은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대한항공은 1·2차전에서 범실을 60개나 했다. 우리카드의 범실은 37개였다. 대한항공의 범실은 대부분 서브 상황에서 나왔다. 대한항공의 서브 범실은 38개로 우리카드(22개)보다 16개나 많았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과감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었다.



여자배구 이소영 KGC인삼공사로 이적

총액 6억5000만원 3년 계약  
인삼공사 단숨에 우승 후보

여자 프로배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최대어인 이소영(27·사진)이 GS칼텍스를 떠나 KGC인삼공사에서 새 출발을 도전한다.

KGC인삼공사는 이소영과 연봉과 옵션을 포함한 총보수 6억5000만원에 3년 계약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소영은 지난 시즌 옵션 없이 연봉 3억5000만원을 받았다. 지난 시즌 GS칼텍스의 여자부 최초 한국배구연맹(KOVO)컵 대회, 정규리그, 챔피언결정전 우승의 3관왕 달성에 앞장선 이소영은 KGC인삼공사의 우승 청부사로 변신한다.

손흥민 대상 온라인 인증차별에  
토틀넘 ‘소셜 미디어 보이콧’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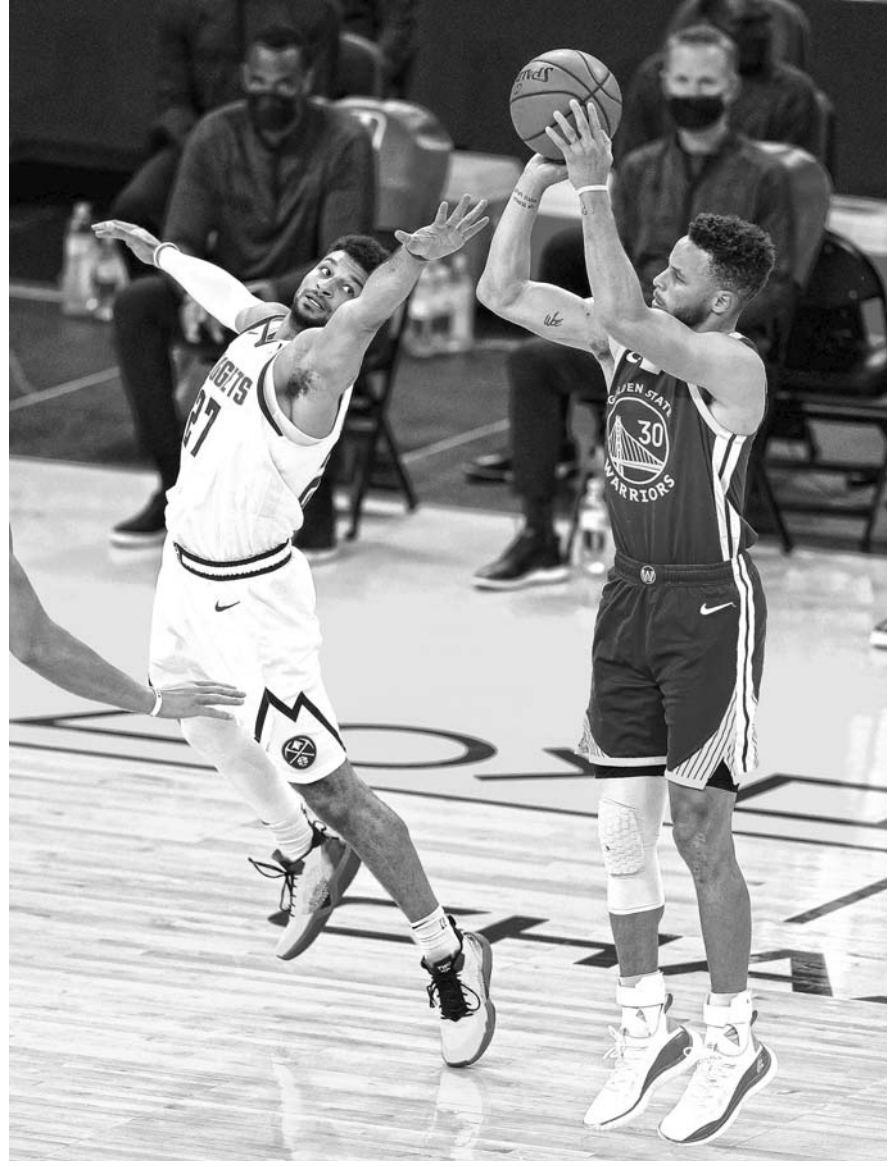
손흥민(29·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인증차별 피해를 보자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틀넘이 소셜 미디어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영국 더선은 12일(현지시간) “손흥민이 최근 온라인 인증차별에 시달리면서 토틀넘이 소셜 미디어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소셜 미디어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전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1라운드 경기 이후 맨유 팬들의 비난 대상이 됐다. 전반 33분 스코트 맥트미니와의 경합에서 반칙을 당해 맨유의 골 추수를 유도했는데, 분노한 맨유 팬들이 손흥민이 과도한 연기를 했다며 악플을 퍼부은 것이다.



게시물에는 “다이빙을 멈추고 돌아가서 고양이와 박쥐, 개나 먹여라”, “땀 먹는 사기꾼” 등 인증차별적 발언이 쏟아졌다. 이에 토틀넘은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에 “우리 선수 중 한 명이 혐오스러운 인증차별을 겪었다. 구단은 프리미어리그와 함께 조사를 거쳐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손흥민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고, 추가 대응을 강구 중이다.



NBA 골든스테이트 최다 득점 신기록 쓴 스테픈 커리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채이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맨바 너지츠의 경기에서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픈 커리(33)가 슛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커리는 53점을 득점해 팀의 116-107 승리를 이끌며 누적 1만7818점을 기록, 구단 역대 최다 득점 신기록을 썼다. 연합뉴스

제주Utd, FA컵 3R “승리 양보 없다”

오늘 김천종합운동장서 격돌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14일 오후 7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2021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에서 제주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는 동시에 최적의 로테이션으로 선수단의 동기 부여까지 높일 계획이다.

제주에는 이번 경기에서 김천에 설욕하는 동시에 사상 첫 FA컵 우승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한다는 각오다. 제주는 오는 17일 인천 원정을 떠나는 압박한 일정을 감안해 이날 경기서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는 동시에 최적의 로테이션으로 선수단의 동기 부여까지 높일 계획이다.

14 (수) Today's Forecast section containing a table of TV schedules for KBS1, KBS2, MBC, JIBS/SBS, and EBS1, along with horoscope forecasts for each zodiac sign.